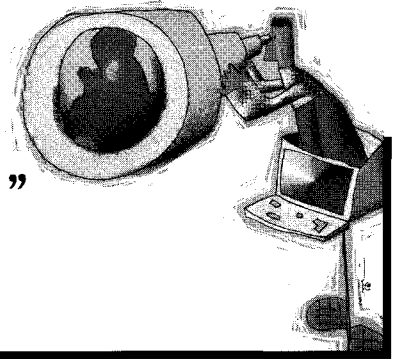




# 누전탐사기 개발 - 김포전력

“끝없는 연구개발로 미래를 개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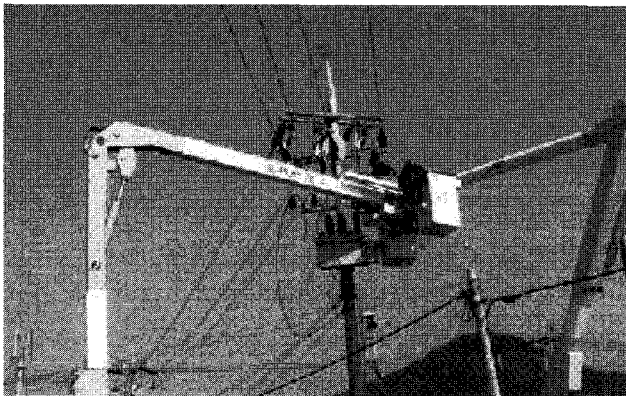


“책임시공, 절대안전, 인화단결”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 김포전력은 1985년 창립되어 소중하면서도 매우 위험한 전기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시설 및 공사에 매진해 온 전기공사 전문업체다.

창립이념인 “성실시공”으로 내.외선 공사 및 소방공사 등을 책임 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전력공사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무 정전 배전공사” 적격업체로서 지역내 관련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선 도 기업이다.

㈜ 김포전력은 현재에만 안주하지 않고 전기시설 및 공사에 최고 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인 재 육성을 통해 책임시공, 절대안전, 인화단결이라는 기업이념을 충 실히 지켜나가고 있으며 미래를 대비한 기술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 고 있다.



이런 기업의 문화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여운환 회장의 기술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많이 작용하였는데 현재 여운환 회장은 한국전 기공사협회 기술개발위원으로서 국내업계 전체의 기술력 향상과 후 진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핵심인물이기도 하다.



“전력신기술 제 19호 지중 누전 탐사기 개발  
(<http://www.kpepc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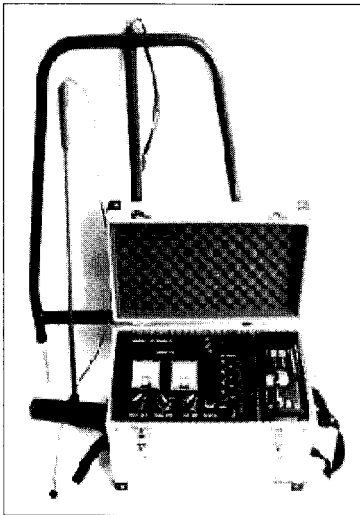
현재 ㈜김포전력은 여운구 대표가 운영하고 있으며 차기 기업의 미 래를 책임질 기술개발의 1차 목표로 3년 전부터 많은 인력과 자금을 소 요하여 추진했던 누전탐 사기 개발이 올해 결실 을 맺게 되었다.

3년 전 가로등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아이가 죽는 사건을 뉴 스를 통해 목도한 후 전

기공사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 움을 느껴 지금의 누전 탐사기 개발이 시작 되었다고 말했다.



초기에 각종 개발상의 문제와 하염없이 들어가는 인력과 자금으로 인해 개발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초심으로 돌아가 개발에 주력하여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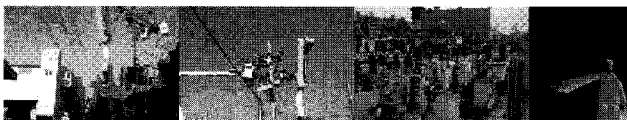


다기능 누전탐사기는 지중선로의 누전부분을 정확히 찾아내는 장치다. 현재는 누전되는 선로만 겨우 찾아내 선로 전체를 굴착공사를 통해 교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가공선을 띄어서 도시미관의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었다.

반면 이 탐사기는 반경 30cm이내의 누전부분을 족집게처럼 탐사함으로써,

그 부분의 경간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선로를 교체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국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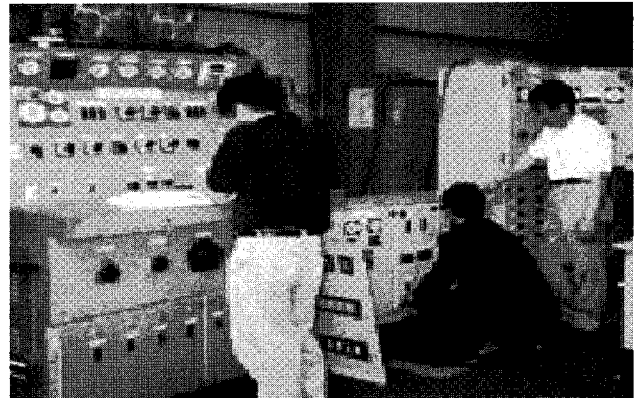
현재 이 누전탐사기는 전력신기술 제19호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나 올해는 신기술 원년으로 전기공사 분야만 진행하고 제품 판매는 보다 혁신적인 제품으로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방침이다.



**“업계 전체 기술력 발전과 인력양성에 앞장”**

여은구 대표의 기술개발에 대한 열정은 남다르다. 앞으로 시장개방을 통해 발생할 선진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도 획기적인 연구개발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외국시장의 기술동향이나 전자시장을 통해 새로운 정보와 신제품을 가져와 연구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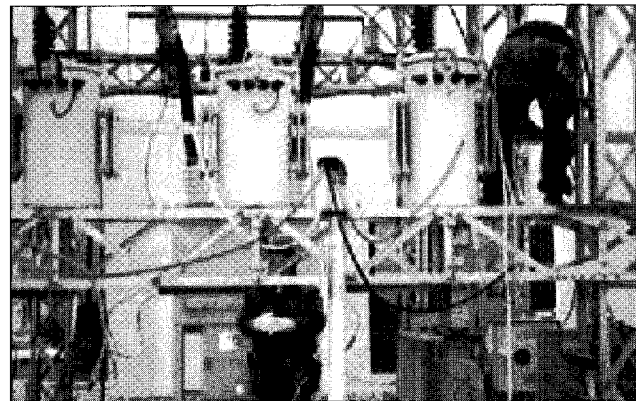
또한 기술인력 양성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 스카우트는 고임금이고 이직이 많아 자체적인 기술인력 육성을 통해 회사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여 이직률을 줄이는 방법으로 신입사원



을 기초부터 직접 가르치고 있다. 당연히 기술인력 양성 부분은 관리자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여은구 대표는 격의없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경직된 회사 분위기로는 의사소통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대표가 아닌 동료입장으로 대하자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러면서도 직원들에게 회사가 필요해서 부를 때는 언제든지 달려올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고 당부하고 있다. 전기사고는 밤낮과 날씨를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회사를 위한 일이 아닌 전기공급중단으로 인해 불편을 겪을 일반시민들을 생각하자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정신으로 여은구 대표는 “전기 일을 하는 사람은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 저도 전기의 소중함을 잘 몰랐지만 지금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일반시민들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문을 맺었다.